

문금주 “반도체 호황, 농어민 환원 확대돼야”

민주당 농어민위원장 자석 삼성에 촉구
“대한민국 경제 성과 이면 농어민 희생”
“기업성과 분배, 책임·균형 속 논의돼야”



특히 문 의원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기업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라며 “이는 단

순한 기부를 넘어 국가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환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울러 “기업이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했다면 그 성과 또한 사회와 함께 나눠야 한다”며 “농어민의 희생 위에 쌓은 이익을 외면한 채 독

점하는 구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의 이익 배분을 둘러싼 진통은 사내외 주식시장 전반으로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최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은 영업이익의 15% 수준에 달하는 규모의 성과급 지급과 상향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개인투자자 등 주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맞불 집회까지 불사하고 나섰다.

주주들은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수용될 경우 그 규모가 기존 주주 배당금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며, 이는 기업의 미래 투자 여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전문학적 이익이 내부 구성원의 성과급 잔치에 치중되기보다는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와 주주 가치 제고, 나아가 농어촌 등 사회적 기반을 향한 환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이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8일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의 성과 이면에는 농어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농어촌에 대한 실질적 환원 확대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호황은 특정 산업만의 성취가 아니라, 수차례 FTA 체결 과정에서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부담을 감내해 온 농어민들의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며 “값싼 수입 농수산물과의 경쟁 속에서 농어촌은 국가 경제를 위해 버텼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현실은 성과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정작 희생을 감내한 농어촌에는 정당한 보상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농어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성장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삼성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성과급 확대 요구와 관련, 문 의원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기업의 성과는 내부 구성원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과 사회적 비용, 농어민의 희생이 결합된 결과인 만큼 성과의 분배 역시 보다 넓은 책임과 균형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행정학회, 통합특별시 ‘시민주권 모델’ 모색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등 설계안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시민 중심의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 마련됐다.

한국행정학회는 빛고을남도포럼과 함께 지난 27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주권주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을 주제로 제1차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오는 7월1일 출범 예정인 통합특별시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시민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시민주권 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

학원 특임교수는 ‘국민주권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의 의의’를 주제로 수도권 집중 심화와 저출산·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정훈 시민주권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민주권정책과 정부 운영 방향’을 주제로 시민이 정책 전 과정에 개입하는 ‘시민주권’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김병완 광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병록(조선대)·김태영(경희대)·박찬영(목포대)·김준형(순천대)·박노수(서울시립대) 교수와 이병현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토론을 펼쳤다.

이번은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발언에 웃고 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공공서비스 영역 일자리 적극 발굴” 지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의 주제

“선진국 대비 질 좋지않고 양도 적어”

“교권과 학생 인권 제로섬 관계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례로 국제청사에서 운영하는 체납관리단의 경우만 봐도, 권어야 할 조세가 100조원 이상 밀려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5천억원

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원을 추가로 걷는다면 이걸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일자리를 늘려)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쫓아와서 내도록 만들고 망신당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 주면 납부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회 안전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분야에 대한 공공일자리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재해도 많고 자살도 많은데, 세계적으로 장외한 일”이라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 전 직원을 모아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제안을 받아 논의해보고 보고해달라.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는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이고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 대통령령안 27건,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8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김진수기자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

“지위·권한·책임 상응 처벌 불가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업·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 운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연합뉴스

실내파크골프장 이용안내 (전국80개) 유명구장

● 18홀 (1회/이용료8천원) ● 10회권/6만 ● 20회권/10만

1:1 교육	★왕초보 레슨반	기본자세, 공치기, 경기방법		1주완성/6만
	★구장 실전체험	80개 스크린구장/경기체험		초보,자격취득과정
	자격증 취득반	파크골프,지도사2급	개인별,수시접수 (이론,실기) 2급/누구나 가능	▶ 2급/28만
파크골프,지도사1급		▶ 1급/35만		
파크골프,심판/강사1급		▶ 심판/10만		

■ **자격취득반/수시접수** ▶ 자격취득까지 추가비용 일체없음
(응시료+교재비+이론교육(영상)+실내실습(자격취득시까지 무료))
* 자격취득 즉시 스크린파크장 무료이용권 10장 제공 / 합격축하 기념

티샷·퍼팅샷·어프로치샷/
개인연습/이용자10분 무료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